

한국교육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한신빌딩) 1614호, 1615호 한국교육학회 사무국
Homepage <http://www.ekera.org> | E-mail kera1953@daum.net | Tel (02)572-4696 | Fax (02)571-7065
발행인 신현석 | 편집인 박대권

권두언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교육 서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전망

한국 교육학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심오한 이론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 학부모, 교육자, 국민의 현실보다 더 지엽하지도,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 주체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숨겨진'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담아내고, 중요한 교육적 난제의 이면에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학문적, 실제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학습 및 교육적 요구로 인하여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자를 교육사각지대 학습자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위하여 학습 및 정서 지원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사각지대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유형 분류, 요구 및 실태 파악, 실제적인 진단과 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사각지대의 학습지원에 있어 가장 초점화된 집단은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이하 경계선 지능) 학습자입니다(김동일, 2023). 경계선 지능은 미국 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 의거하여 '전체지능(IQ) 수준이 71~84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SM-5의 지적장애 분류 기준 내에서는 'V-code'라는 추가된 하위 유형으로 '그 외 증상으로 임상 주의가 필요한 집중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특수교육대상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교육사각지대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시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상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약 13.6%로 인구수를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를 것이라 하지만, 정확한 진단기준이 없기에 수치에 대한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4% 정도이며, 이는 20만명에 못 미치는 수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경계선 지능인이 지적장애의 10~15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조선일보, 2023. 11. 19.). 최근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담임교사가 관찰자척도로 실시하여, 조사대상 초등학교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의심학생은 16,414명(4.6%)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 학생 탐색군은 3,614명(1.0%)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지능으로 보이는 학생이 4.6%로 반에서 1명 정도가 이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김태은 외, 2024). 이와 더불어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사회성으로 인하여 폭행, 성범죄, 사기, 학교폭력 등과 같은 관련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인줄도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에 조기에 발굴하여 진단과 지원으로 의뢰하는 체계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을 제시하고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학령기 학생의 교육적 측면으로 본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진단을 통하여 적격성 여부를 결정한 후,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제시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으로서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포함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보편적으로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인지적 발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 학습과 일상생활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업적 과제나 일상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복잡한 지시를 따르는 데 상당한 도전을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계산이나 읽기 이해와 같은 교과 학습에서 뒤처지거나,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교육사각지대 학습자로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학습 실패로 인한 낮은 자존감, 학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학업 동기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경향은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나가기 어렵게 합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또래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에서 미성숙하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소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로 인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 되기도 합니다.

학령 전기는 또래에 비해 다소 느린 아동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업과 사회적 언어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학령기는 학업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의 속도가 더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이 시기의 학업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 교육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 않

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사각 지대에 머물게 될 위험이 큼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및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층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MTSS)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중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전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위기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학업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그룹 학습을 통한 집중적 교육, 정기적인 개별 상담, 필요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일본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자립과 성인기 전환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91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중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63개 지자체와 12개 지역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로 제정되는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3년마다 갱신되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직업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습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에 4건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기 선별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확한 수와 지원 요구를 파악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인 역할을 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그들이 가지는 특성이나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발굴을 통하여 예방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과 같은 결석이력을 통하여 발굴하고 대면 관찰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경계선 지능 학생도 발굴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에 한국교육학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통하여 충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가능한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함께 하길 바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또한 학교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수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촉진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회원들의 연구와 실천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조기 선별과 맞춤형 지원이 좀 더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우리 학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교육사각지대 학생들이 교육 현실에서 자신감을 지니고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 비전 공유와 가능성으로 이끄는 교육의 전환기를 기대합니다.

- 필자: (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현) BK21혁신과공존의교육연구사업단 단장
- (전)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장